

한양대학교 2015학년도 논술전형



인 문 계 열 (1)

성명		지원 학부·학과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유의 사항

1. 75분 안에 답안을 작성하시오.
2. 답안지는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으로 작성하시오.
3.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하시오.
4. 다음 경우는 0점 처리됩니다.
 - 1) 답안지를 검정색 펜(볼펜, 연필, 샤프)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기나 표현을 한 경우
 - 3) 답안을 해당 답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감독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 장으로 넘기지 마시오.

[문제] 다음은 추사 김정희의 작품 「세한도(歲寒圖)」이다. (가)를 참고하여 (나)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세한도」의 의미를 해석한 다음, (나)와 같은 관점의 문제점을 (다)를 바탕으로 지적하고, (다)와 같은 관점에서 「세한도」의 ‘집’을 중심으로 자신이 감상한 바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1,000자)



(가)

지난해엔 『만학(晩學)』과 『대운(大雲)』 두 책을 보내오고 올해에는 또 『우경문편(藕耕文編)』을 보내주니 이 책들은 모두 세상에 늘 있는 것이 아니로다. 천만 리 먼 북경에서 사왔고 여러 해에 걸쳐서 얻은 것이니 일시에 가능했던 일도 아니다. 지금 세상의 물결은 온통 권세와 이익만을 좇는데 이런 일에 그처럼 마음과 힘을 쏟았으니 이는 권세와 이익을 좇지 않음이다. 외려 세상 사람들이 잇속을 좇듯 바다 밖 초췌한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이다. 사마천이 이르기를, 권세와 이익으로 만난 이들은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귀이 멀어진다고 하였다. 그대 또한 도도한 세상 물결 중의 한 사람이거늘 그러한 잇속 밖으로 벗어났으니, 권세와 이익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 것인가, 사마천의 말이 틀린 것인가! 공자께서는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알게 된다.”라고 하셨다. 송백(松柏)은 추워지기 전이나 뒤나 똑같은 송백이건만, 성인께서 특별히 ‘날씨가 추워진 뒤’를 힘주어 말씀하셨다. 이제 그대가 나를 대함은 예전이라고 더 잘한 게 없고 뒤라고 더 소홀히 한 것도 없으니, 예전의 그대야 일컬을 게 없지만 이후의 그대는 성인에게서 칭찬받을 만하지 않은가! 성인께서 특별히 일컬으심은 그저 뒤늦게 시드는 정절과 지조 때문만은 아닐지니, 또한 날씨가 추워진 때에 느껴 일어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아, 풍속이 순후했던 전한(前漢) 시대 급암(汲黯)과 정당시(鄭當時)처럼 어진 사람도 빈객이 그들의 형편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곤 했다. 그래도 하규(下邳)의 적공(翟公)이 대문에 써 붙인 말 [* 주 :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을 때, 한 사람은 가난하고 한 사람은 부유할 때, 한 사람은 신분이 높고 한 사람은 신분이 낮을 때, 그 사귀의 정과 태도를 볼 수 있다.] 은 박절하기가 그지없다. 슬프다, 완당 노인은 쓰노라.

[도움말]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5년째 유배 생활을 하던 1844년, 자신을 대하는 제자 이상적의 한결같은 마음에 감격하여 그에게 그려 보낸 작품이다. 추사는 그림 왼편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여 「세한도」의 창작 경위를 위와 같이 적었다. 당시 추사의 나이는 59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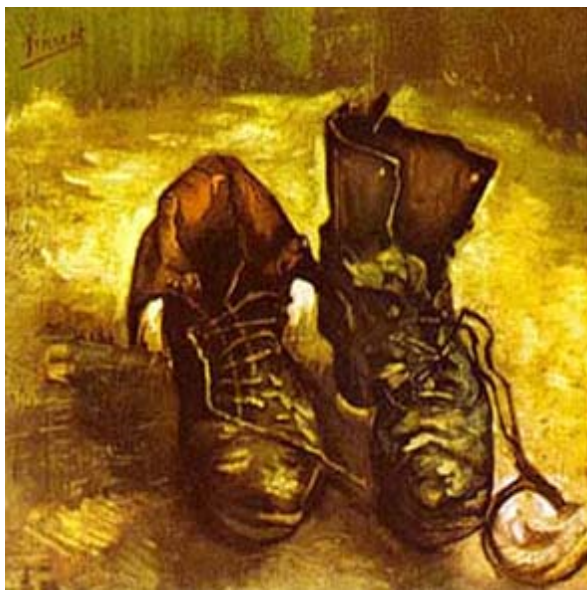
(나)

도상학(iconography)이라는 용어는 두 개의 그리스 단어, ‘이미지’를 뜻하는 ‘에이콘(eikon)’과 ‘기록하기’를 뜻하는 ‘그라페(graphe)’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어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미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도상학이다.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예술 작품에 나타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단계에서 출발해, 관습적 의미를 중시하여 문헌 자료와 지식을 통해 작품의 주제나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국가, 시대, 종교, 철학적 신조 등을 파악하여 작품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요컨대 도상학자들에게 회화 작품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읽어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이를 위해 도상학자들은 문화적 코드를 정확하게 독해하여 작가의 의도를 복원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1305년에 제작된 조토의 프레스코화 「성탄」을 보자. 헛간에서 한 여자가 천으로 싼 어린애를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그 앞에는 나이 든 남자가 졸고 있고, 주변에 황소와 당나귀, 흰 양 여섯 마리와 검은 염소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관습적으로 보면 이 그림은 『성경』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서 그림 속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앞의 남자는 요셉, 헛간은 마리아가 예수를 출산한 마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해산을 마친 마리아는 깨어 있는데 요셉은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실제 아버지는 신이지 요셉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속세의 아버지인 요셉을 성탄이라는 상징적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다)



“이 구두라는 도구의 밖으로 드러난 내부의 어두운 틈으로부터 들일을 하려 나선 이의 고통이 응시하고 있으며, 구두라는 도구의 실박한 무게 가운데는 거친 바람이 부는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걷는 강인함이 쌓여 있고, 구두 가죽 위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함이 깃들여 있다. (.....) 이 구두라는 도구에 스며들어 있는 것은 빵의 확보를 위한 불평 없는 근심과 다시 고난을 극복한 뒤의 말없는 기쁨과 임박한 아기의 출산에 대한 전전긍긍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의 전율이다. 이 구두라는 도구는 대지에 속해 있으며, 촌 아낙네의 세계 가운데서 보존되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구두」에 대한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글이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예술가의 주관성의 표현이 아니다. 예술의 본질은 좀 더 깊은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림이란 다른 무엇이기에 이전에 우선 물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림은 이런 ‘사물적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어떤 것’이며, 이 ‘다른 어떤 것’이 바로 예술의 본질을 이룬다. 하이데거에게 중요했던 것은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작품 그 자체가 말하게 하는 것, 곧 구두로 하여금 말을 하게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흐의 그림은 구두라는 도구가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열어 보여준다. 그 결과 구두에 대한 관습적인 생각 속에 감추어져 있던 구두라는 존재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하이데거의 견해에 따르면 예술의 진리란 근대 미학에서 말하는 재현으로서의 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재현의 진리는 묘사 대상이 되는 존재자와의 일치, 곧 모방의 진리를 뜻한다. 하지만 작품 속에 정립되는 진리는 은폐된 진리를 드러내는 개시의 진리인 것이다. 작품을 현실 속 대상의 모방으로 바라보고, 그 대상을 작가 관련 맥락 속에 귀속시키고, 나아가 작가의 자의식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근대 미학의 특징이며 하이데거가 무너뜨리고자 했던 바로 그것이다.